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태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로에베 공예상(Loewe Craft Prize)에
나타난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사례
분석 연구

202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박수미

로에베 공예상(Loewe Craft Prize)에
나타난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사례
분석 연구

박태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박수미


인 준 서

박수미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12월

심사위원장 한 명 숙 

심사위원 박 태 성 

심사위원 김 가 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로에베 재단 공예상(LOEWE FOUNDATION Craft Prize)은 2016년 로에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나단 앤더슨(Jonathan Anderson)이 기획하여 현대 장인 기술의 탁월함과 예술적 가치를 기념하고 새로운 작품을 조명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로에베 공예상은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의 작가들에게 창의성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심사 기준 중 '전통의 혁신'을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공예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의 새로운 시각을 모색해오고 있는 로에베 공모전은 공예가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 사회적 및 환경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로에베 공예상에 선정된 최종 결선 진출작을 통해 전통 공예의 현대적 재해석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 공예 분야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로에베 공예상에 대상 수상작 및 최종 결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을 살펴보고, 크게 소재, 기법, 형태에서 보이는 전통과의 관련성을 도표 및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통 소재, 기법, 형태 등의 3대 요소 활용 방식과 양상에 대해 특정 용어로 개념화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각 작가의 작품에서 보이는 전통의 역할에 관해 기술하였다. 로에베 공예상이 추구하는 미래의 공예에 관해 본 연구는 전통에 시점을 두고 현 공예에 대한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예 발전 방안의 대안으로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동기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2
II. 본론	3
1. 로에베 공예상의 기본 현황	3
1) 로에베 공예상의 설립 배경 및 목표	3
2) 로에베 공예상의 운영 방식 및 현황	7
2. 로에베 공예상에 나타난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14
1) 대상 수상작 사례 분석	14
2) 최종 결선 진출작 중 국내 작가 사례 분석	24
III. 결론	39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로에베 공예상의 운영 방식	7
【표 3】 분야별 수상작 수 현황	9
【표 3】 국가별 수상작 수 현황	9
【표 4】 역대 로에베 공예상 대상 수상작 현황	10
【표 5】 역대 로에베 공예상 최종 결선 진출작 중 전통의 요소가 포함된 국내 작가 작품 현황	11
【표 6-1】 이규홍 작가의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1)	27
【표 6-2】 이규홍 작가의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2)	27
【표 7】 이영순 작가의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	30
【표 8】 이재익 작가의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	33
【표 9】 정명택 작가의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	35
【표 10】 허상욱 작가의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	38

그림 목 차

【그림 1】 로에베 트로피와 로에베 재단 공예상의 홍보 포스터	4
【그림 2】 2022년 로에베 공예상 최종 심사위원 9인의 모습	4
【그림 3】 장연순, Matrix III Time, Space, Human - 1,2,3, 2018 (좌)	4
【그림 4】 장연순, Matrix I-080405, 2018 (우)	4
【그림 5】 정다혜 개인전, ‘Mind, Hand and Time’ 전시 포스터(좌)	5
【그림 6】 최기룡 외 3인 단체전 전시 포스터(우)	5
【그림 7】 Tree of Life 시리즈의 소재가 된 쓰러진 나무 더미	6
【그림 8】 에른스트 갬펠, Tree of Life 2, 2017	6
【그림 9】 쿠로다 타츠야키, 차통, 1980(좌)	14
【그림 10】 이시즈카 겐타, Surface Tactility #11, 2019, 대상 수상작(우) ..	14
【그림 11】 건칠발 (ぞく鉢), 나라시대(8세기),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15
【그림 12】 일광보살좌상(日光菩薩坐像), 나라시대(8세기),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15
【그림 13】 이시즈카 겐타의 작업 과정 일부	16
【그림 14】 Surface Tactility 시리즈의 모티브가 된 망굴	16
【그림 15】 이시즈카 겐타, Surface Landscape, 2015, 멤브레인 출품작	16
【그림 16】 염색 전 직물에 바느질을 하는 백족 여성의 모습	18
【그림 17】 훌치기 염색 기법의 결과물	18
【그림 18】 초기 작업물 - 쿠션 시리즈	18
【그림 19】 린 광루, She, 2017, 2021 로에베 공예상 대상 수상작(좌), 작품 확대 사진(우)	19
【그림 20】 동족 전통 의상에 사용된 광택천의 모습	20

【그림 21】 린 광루, Love under the hammer, 2023	20
【그림 22】 백말총 토시(좌), 흑말총 토시(오), 토시를 재현한 작품, 2020 ...	21
【그림 23】 마미향갑선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참고 제작, 2020	21
【그림 24】 마미향갑선추, 경운박물관 소장 유물 참조 제작, 2020	21
【그림 25】 정다혜, 말총-빗살무늬, 2021	22
【그림 26】 정다혜, A Sincerity of Time, 2021, 대상 수상작	23
【그림 27】 사방관 관모 문양 적용 부분	23
【그림 28】 이규홍, 다듬잇돌 #1, 2014 (좌)	25
【그림 29】 이규홍, 떡둥구미 #2, 2014 (우)	25
【그림 30】 이규홍, Trace of Time, 2023	25
【그림 31】 이영순, Cocoon Top series, 2019	28
【그림 32】 지승 작품 제작을 위한 준비 작업물	28
【그림 33】 이재익 작가의 'Lifeform'_작업 시리즈	30
【그림 34】 이재익, Transition VII, 2023	31
【그림 35】 작품 제작 과정	32
【그림 36】 정명택, Dumbung-Jucho, 덩병 주초, 2022	34
【그림 37】 허상욱, 분청 청, 철화 은채 파초문 호, 2022	36
【그림 38】 허상욱, 분청 청, 철화 은채 파초문 호, 2019	37
【그림 39】 청, 철화 은채의 확대 모습	37

I. 서 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로에베(Loewe)¹⁾ 공예상은 현대 공예 분야에서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국제 공모전으로서 브랜드의 전통과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독창적인 작품 출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공모전의 주요 목적은 공예의 경계를 확장하고 전통 기술의 재해석을 통한 새로운 공예 상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전통에 대한 부분은 작품 심사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외에 작품의 창의성,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사회적 및 환경적 맥락으로 심사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공예를 단순히 실용성과 미적 가치의 관점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공예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공예의 역할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본 공모전이 지향하고 있는 키워드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통의 혁신에서 보여지는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전통의 혁신에 의한 결과가 새로운 공예의 역할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은 많은 이들에 의해 제시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최근 로에베 공예상에서 보여지는 전통이라는 소재는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로에베 공예 공모전에서 보여지는 ‘전통의 혁신’이 현대

1) 1846년 스페인에서 가죽공예에 혁신하는 집단 공방으로 시작된 로에베는 디자인 및 제작 접근 방법에 있어 장인 기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 왔다. 이후 30년 가까이 지난 1872년 독일 출신의 엔리케 로에베 로스버그가 공방에 참여하면서 하나의 이름 아래 모이게 되었다.

공예의 혁신으로 이어져 새로운 창작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출품작 및 수상작을 대상으로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양상을 확인하고, 전통 공예의 현대화 가능성을 탐구하며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로에베 재단(Loewe Foundation)이 주최하는 로에베 공예상(Loewe Craft Prize)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18세 이상 공예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상작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서 ‘전통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기에 공예에 있어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에 대한 양상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혁신적인 전통의 재해석에 의한 새로운 공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상작에 대한 분석과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로 개최가 무산된 2020년을 제외한 총 7회에 걸친 수상작을 대상으로 공예 분야 및 국가별 수상 내역을 기준으로 본 공모전의 특색 및 현황 파악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는 공모전의 기본 현황 및 작가 작품의 제작 의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로에베 공식 브랜드 홈페이지, 도록, 관련 기사, 수상 작가들의 대표 홈페이지, 작가 및 심사위원 인터뷰 기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로에베 공예상 수상작 중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가 및 작품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대 공예 분야에서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방법을 탐구하고, 향후 공예 분야에서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로에베 공예상의 기본 현황

1) 로에베 공예상의 설립 배경 및 목표

로에베 공예상(LOEWE Craft Prize)은 2016년 스페인의 럭셔리 브랜드 로에베(Loewe)에 의해 국제적 공모전으로 시작되었으며 뛰어난 재능과 비전으로 미래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자 하였다. 조나단 앤더슨(Jonathan Anderson)²⁾은 2016년 로에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하자마자 로에베 브랜드의 역사성을 공예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예상을 제정하였다. 앤더슨은 아일랜드 태생으로 어릴 적부터 북아일랜드의 여성들이 손수 제작한 ‘아란(Aran)’ 니트웨어를 자주 접했으며,³⁾ 또한, 할머니와 함께 자란 이유로 공예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 자연스레 수공예에 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앤더슨은 공예상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예는 로에베의 정수이자 로에베의 현대성이 숨 쉬는 곳이며 공예와 로에베의 인연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⁴⁾

로에베 공예상의 주요 목표는 현대 공예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기념하고, 이를 통해 공예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상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2) 아일랜드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로 2008년에 본인의 이름을 딴 패션 브랜드 ‘JW 앤더슨’을 창립했으며, 현재 로에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약 중이다.

3) 손기호, 「북촌에서 조나단 앤더슨과 나눈 애정과 영감에 관한 대화」, 『보그 매거진』, 2023.03.08. <https://www.vogue.co.kr/?p=285308>

4) 로에베 재단 공예상 공식 홈페이지, <https://craftprize.loewe.com/en/craftprize2025>

LOEWE
FOUNDATION
CRAFT
PRIZE



Photo: 2022 Loewe Prize



【그림 1】 로에베 트로피와 로에베 재단 공예상의 홍보 포스터

【그림 2】 2022년 로에베 공예상 최종 심사위원 9인의 모습

첫째, 공예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현대 공예는 단순히 기능성을 넘어 예술적 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로에베 공예상은 이러한 공예의 다층적 의미를 강조하며 공예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8년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된 장연순 작가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직조, 염색, 바느질 등 섬세하면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여성들의 노동 집약적인 섬유 제작 과정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작가는 직접 염색한 섬유를 잇고, 꿰매는 지난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 평면을 입체로 변환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가는 섬유 제작 과정을 통해 여성 노동의 가치와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그림 3】 장연순, Matrix III Time, Space, Human - 1,2,3, 2018 (좌)

【그림 4】 장연순, Matrix I-080405, 2018 (우)

둘째, 전 세계의 재능 있는 공예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본 상은 다양한 배경과 문화에서 활동하는 공예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그들의 작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로에베는 공예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의 공예 작업을 조명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작가뿐 아니라 최종 결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작가들 또한 공모전 이후 국제적인 갤러리에서 전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인 최초로 로에베 공예상에서 대상을 받은 정다혜 작가는 2023년 로에베 재단의 후원을 받아 런던에서 첫 국외 개인전을 선보이기도 하였으며 2024년에는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되었던 이규홍, 최기룡, 천우선 작가와 함께 단체전을 통해 해외에 한국 공예를 알리기도 하였다.



【그림 5】 정다혜 개인전, ‘Mind, Hand and Time’ 전시 포스터 (좌)

【그림 6】 최기룡 외 3인 단체전 전시 포스터 (우)

셋째, 공예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환경 문제와 자원 고갈과 같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과 재료의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다. 로에베 공예상은 이러한 가치들을 반영하여 공예가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1회 대상 작가로 선정된 에른스트 갬펠(Ernst Gamperl)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작가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지 않고 바람에 의해 쓰러지거나 물에 떠밀려 내려온 나무만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한다. 2017년 제1회 로에베 공예상에서 선보인 작품은 수령이 230년 된 참나무를 선반으로 가공해 쓰러진 나무가 지나온 세월을 고스란히 담아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재탄생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7】 Tree of Life 시리즈의 소재가 된 쓰러진 나뭇더미



【그림 8】 에른스트 겐펠, Tree of Life 2, 2017

마지막으로, 로에베 공예상은 작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심사 과정과 전시를 통해 다양한 공예가들이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영감을 얻을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24년 7월, <까사 로에베 서울(Casa Loewe Seoul) : 수집가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첫 로에베 플래그십스토어가 청담동에 오픈하였는데 이를 기념하며 로에베에서는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된 한국 작가를 모두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로에베 공예상이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닌 공예 작가들이 만나 서로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으며 이는 공예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반적인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목표를 통해 로에베 공예상은 현대 공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예가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로에베 공예상의 운영 방식 및 현황

로에베 공예상은 매년 특정 기간에 공모가 진행되며 전 세계의 공예가들에게 문을 연다. 공예가들로부터 전통적인 기법뿐만 아니라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창의성을 표현한 작품을 제출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사는 국제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 작품은 예술성, 기술적 우수성, 역사 및 전통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수상작은 로에베의 창의적 비전과 공예 예술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며, 선정된 작가에게는 상금과 함께 로에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작품을 전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2025년 제8회 로에베 공예 공모전은 2024년 7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가 진행되었으며 공예상의 자세한 운영 방식의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① 운영 방식

【표 1】 로에베 공예상의 운영 방식

로에베 공예상의 운영 방식		
항목	세부 내용	
공모 및 제출 요건	대상	18세 이상의 전 세계의 공예가,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가능
	작품 요건	공예적 요소를 포함하며 재료와 기법의 다양성 요구
	제출 기간	매년 특정 기간에 공모가 진행되며 로에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
	참여 방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작품 사진 및 작품의 기획 의도와 제작 과정을 포함한 설명 제출

심사 과정	심사위원 구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예가, 디자이너, 학계 인사 및 예술 전문가들로 구성
	평가 기준	역사성, 전통성, 독창성 및 혁신성, 기술적 숙련도, 재료의 활용
	심사 단계	2개월간 작품 사진으로 100여 명 선정 -> 스페인 현지에서 실물 심사로 50명 선정 -> 30명에 대한 이력 확인 (타 공모전 지원 여부, 판매 여부 검수)
	결과 발표	대상 수상자는 공식 행사에서 발표
수상작 전시 및 홍보	전시 장소	로베에 전시 공간 또는 국제적 아트 페어 및 공예 관련 행사 공간, 디지털 전시관 운영
	홍보 방법	수상작을 포함하여 출판물 발행, 소셜 미디어 및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
	전시 기간	수상작 전시는 일정 기간 진행되며, 관객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향후 전시 기획에 반영
지속적 지원 및 네트워킹	프로젝트 지원	수상자에게는 로에베 재단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 제공
	행사 초청	다양한 전시 및 콘퍼런스에 초청하여 공예가들 간의 네트워킹 기회 마련
	멘토링 프로그램	수상자와 전문가 간의 연결을 통해 전문적 조언 및 협업 기회 제공
	커뮤니티 형성	공예가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경험 공유 및 협력 증진

② 현황

로에베 공예상은 최종 결선 진출작을 총 12개의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총 7회에 걸쳐 선정된 205점의 최종 결선 진출작을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 도자 작품이 45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섬유, 금속, 유리, 목공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예 시장의 영역 또는 소비량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도자 분야의 수상작 수가 많은 이유는 도자기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자 산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국가별 도자 산업의 특색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표 2】 분야별 수상작 수 현황

순위	분야	수상작 수
1	도자(Ceramics)	45
2	섬유(Textiles)	26
3	장신구(Jewellery)	25
4	금속(Metal)	23
5	유리(Glass)	22
6	목공(Wood)	17
7	기타(Other)	14
8	옷칠(Lacquer)	11
8	종이(Paper)	11
10	가구(Furniture)	8
11	가죽(Leather)	2
12	에나멜(Enamel)	1
계		205

【표 3】 국가별 수상작 수 현황

순위	국가	수상작 수
1	대한민국	30
1	일본	30
3	영국	23
4	미국	16
5	독일	13
6	중국	9
7	스페인	8
8	프랑스	6
8	덴마크	5
8	호주	5
8	벨기에	5
8	캐나다	5
13	이탈리아	4

【표 3】의 국가별 수상작 수를 보면 전체 205명의 최종 결선 진출작 중 한국과 일본에서 각 30명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와 더불어 【표 4】에서는 역대 로에베 공예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7회에 걸친 공예상에서 대상을 차지한 4명이 동아시아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일본이 2명, 한국과 중국 출신 작가가 각 1명으로 동아시아 지역이 공예 분야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는 동아시아 출신 작가들이 오래된 공예 역사를 바탕으로 전통 공예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거나 글로벌화된 시각에서 새로운 창작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통 공예가 중요한 문화적 자원임을 증명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4】 역대 로에베 공예상 대상 수상작 현황

역대 로에베 공예상 대상 수상작 현황						
년도	회차	수상자	국적	작품 사진	전통적 요소	주요 재료
2017	1회	에른스트 갬펠 (Ernst Gamperl)	독일		해당사항 없음	오크
2018	2회	제니퍼 리 (Jennifer Lee)	영국		해당사항 없음	숙성된 흙
2019	3회	이시즈카 겐타 (Genta Ishizuka)	일본		전통 건칠 기법	스티로폼볼, 삼베, 옷

2021	4회	린 팡루 (Lin Fanglu)	중국		홀치기 염 기법	면, 면사
2022	5회	정다혜 (Da-hye Jeong)	한국		말총 공예	말총
2023	6회	이나자키 에리코 (Eriko Inazaki)	일본		해당사항 없음	자기점토
2024	7회	안드레스 안자 (Andrés Anza)	멕시코		해당사항 없음	석기점토, 아크릴 물감

【표 5】 역대 로에베 공예상 최종 결선 진출작 중 전통의 요소가 포함된
국내 작가 작품 현황

역대 로에베 공예상 최종 결선 진출작 중 전통의 요소를 포함한 국내 작가 작품 현황					
년도	회차	수상자	작품 사진	전통적 요소	주요 재료
2017	1회	김상우		옹기 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자연의 이미지를 투영한 오브제 제작	석기토
2018	2회	장연순		섬유 직조 기법과 짜인 소재의 이미지를 활용	아바카 섬유

		정해조		전통 옷칠(건칠) 기법	삼베, 옷
2019	3회	이영순		전통 지승 공예 제작 기법을 활용한 작품 제작	한지, 고서
		김민희		옛 장례복의 이미지를 신소재를 활용하여 제작	모노, 필라멘트
2021	4회	박성열		전통 옷나무 수액을 활용해 작가만의 기법을 개발하여 오브제 제작	옷
2022	5회	정다혜		말총 소재 및 기법 사용하여 기(器)형의 오브제 작품 제작	말총
		정명택		고건축 주춧돌의 형태를 차용한 아트 퍼니처 제작	스테인리스 스틸, 황동, 자연석
		허상욱		분청사기 제작 기법	분청토, 화장토

		이규홍		전통 민예품인 맷돌의 형태를 활용한 유리 오브제 제작	광학유리, 옷, 금박
2023	6회	이재익		전통 달항아리의 형태를 금속을 소재로 하여 재해석	적동, 포슬린 채색 안료
		천우선		전통 달항아리의 형태를 금속을 소재로 하여 재해석	니켈실버, 구리
2024	7회	김희찬		전통 조선(造船) 기술을 활용한 나무 오브제 제작	물푸레나무, 구리
		유다현		전통 민예품의 형태 (땅콩 초배기, 동구리)	배지터블 가죽

위 표에 나타나는 작품 외에도 로에베 공예상에 최종 결선 진출한 국내 공예 작가의 작품에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위의 표에서는 전통의 소재, 기법, 형태 등의 요소와 관련하여 엄선한 작가만을 제시하였다.

2. 로에베 공예상에 나타난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1) 대상 수상작 사례분석

본 장에서는 로에베 공예상 대상 수상작 중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의 예로 명확히 드러나는 작가로서 이시즈카 겐타(일본), 린 팡루(중국), 정다혜(한국) 등 3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작품과 로에베 수상작에서 보이는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이시즈카 겐타(石塚源太, Genta Ishizuka, 1982~)

일본 교토 출생인 이시즈카 겐타 작가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아버지를 따라간 도요타 시립 미술관에서 옷칠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다. 그곳에선 이시즈카와 같은 교토 출생의 전설적인 옷칠 장인인 쿠로다 타츠아키(黒田辰秋, 1904~1982)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그때 쿠로다의 작품을 보고 칠공(漆工)에 매료되어 교토 시립 예술대학에 진학하였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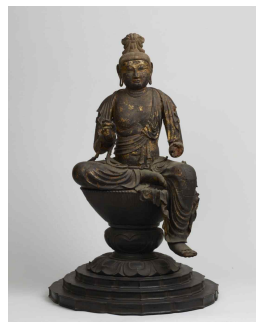
【그림 9】 쿠로다 타츠아키, 차통, 1980 (좌)

【그림 10】 이시즈카 겐타, Surface Tactility #11, 2019, 대상 수상작 (우)

이시즈카 겐타는 <Surface Tactility #11> 작품을 통해 2019년 로에베 공예상 대상을 수상하였다.(【그림 10】 참조)

5) Ala CHAMP, (2021, 7), <https://champ-magazine.com/art/genta-ishizuka/>

한글로는 ‘표면의 감촉’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작품이 지닌 질감을 관객이 공감각적으로 전달받는 경험을 의도한 제목 선정이라 볼 수 있다. 작가가 작품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은 건칠(乾漆, Kanshitsu)로 이는 삼베나 면과 같은 천에 옷 수액을 발라 백골이라 부르는 태(胎)에 붙인 후, 건조와 연마 과정을 10회 이상 반복하는 전통 옷칠 제작 기법이다. 과정의 번거로움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법 특성 때문에 주로 불상과 같은 종교적 사물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기(器)형으로 제작되어 전해지는 유물은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 현대에는 제작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림 11】 건칠발 (ぞく鉢), 나라시대(8세기),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그림 12】 일광보살좌상(日光菩薩坐像), 나라시대(8세기),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작가는 건칠 특유의 광택과 매끄러운 질감에 착목하여 이를 표현하기 위해 형태를 만들고 천과 옷을 입힌 후 수천, 수만 번의 손길로 작품을 연마한다. 그 과정 자체가 작가에게는 옷칠 재료 표면의 감촉을 느끼는 과정이며 완성된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시각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촉각적인 느낌을 통해 작품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된다.

옷나무 수액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형태를 유지할 수 없어 작가는 스티로폼 볼을 이용하여 형태를 제작한 뒤 탄성이 있는 천을 덧씌우고 옷을 쌓아 올리는 기법을 사용한다.

작품의 형상 또한 슈퍼마켓에서 망에 담긴 꿀을 보고 작품을 제작하게 된

작가는 굴과 망이 한 장의 얇은 막으로 내부와 외부가 결국 하나의 형태를 이루었다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얇은 천을 수 겹 덧씌워 하나의 형태로 완성되는 옷질의 특성을 살려 제작하였다.



【그림 13】 이시즈카 겐타의 작업 과정 일부



【그림 14】 Surface Tactility 시리즈의 모티브가 된 망굴

【그림 15】 이시즈카 겐타, Surface Landscape, 2015, 멤브레인 출품작

이시즈카 겐타가 2018년 진행했던 개인전의 제목인 ‘멤브레인’(Membrane)도 같은 맥락의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멤브레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인체 및 피부 조직의 막, 식물의 세포막 등을 뜻하는데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생명체의 유기성을 옷과 천 사이의 관계성을 통해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작가의 작품을 보면 액체였던 옷이 얇은 삼베와 만나 겹겹이 쌓여 아주 단단한 껍질을 형성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처럼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 것인지는 관객의 상상에 맡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전통 옷칠 기법인 건칠이 가진 성질의 조화가 매우 적절하게 느껴지며 또한 작가가 의식적으로 표현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망에 담긴 굴이라는 단순한 모티프를 건칠의 매끄러운 특징과의 연계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오브제의 세계로 구현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공예의 질료적 요소가 단순한 재료와 기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지난한 공예적 표현에 의해 생성된 표면 질감에는 많은 함축된 의미와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며 그 점을 작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의 성립은 공예가 갖는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타 장르와는 차별화된 표현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기에 예술표현 영역의 확장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시즈카는 이러한 전통 옷칠의 소재적 특성을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결합하여 공예품은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표현 수단으로써 공예적 소재를 사용하여 공예의 영역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② 린 팡루(林芳璐, Lin Fanglu, 1989~)

린 팡루 작가는 중국 대련 출신의 섬유 공예 작가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중앙미술학원(Central Academy of Fine Arts)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대학원 재학 시절, 독일과 일본에 교환학생을 다녀오면서 유리, 도자, 칠기 등 다양한 전통 소재의 공예를 접할 수 있었다.

작가는 2014년 처음 원난성 지역에 방문했을 때, 여성 장인들 사이에서 전수되어 오는 섬유 염색 전통 기법인 흘치기 염⁶⁾에 매료되어 2년간 함께 생활하며 연구하였다. 전통적인 흘치기 염의 마지막 과정은 염료가 흡수되지 않도록 묽거나 꿰어둔 실을 제거하는 것인데 작가는 염색된 섬유의 결과

6) 흘치기 염이란 염색하려는 섬유를 주로 묽거나 바느질하여 문양 부분이 염색되지 않도록 하는 방염 작업을 거쳐 시문하는 염색 기법이다.

물만을 보았을 때, 그 과정에 쏟아내는 장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드러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림 16】 염색 전 직물에 바느질을 하는 백족 여성의 모습
 【그림 17】 흘치기 염색 기법의 결과물

이런 이유로 흘치기 염 기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묶기, 꿰맨 흔적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그 결과물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작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여성 장인들의 노고가 무시되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작품에 담고자 하였다.⁷⁾ 작업 초기에는 판람근(板藍根)⁸⁾⁹⁾이라는 식물을 사용하여 푸른색으로 천연 염색하는 전통 기법을 체득하는 과정을 거쳐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을 제작하는 모습을 【그림 18】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8】 초기 작업물 - 쿠션 시리즈

7) 삼각산 금암미술관 [뭉다, 잇다, 엮다]展 작가 린 광루 인터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P48B6IOCTs>
 8) 십자화과에 속한 대청의 생약명. 뿌리는 약용하며 잎이 수용성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 잎을 가공하여 판청색소(藍靛素)로 조제한다.
 9) 이열, 「중국 전통 천연염색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국 윈남(云南)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6, p. 54.



【그림 19】 린 광루, She, 2017, 4회 로에베 공예상 대상 수상작(좌),
작품 확대 사진(우)

2021년 로에베 공모전에서 선보인 작품 <She> 는 천연 섬유의 부드러운 아이보리 색조를 띄며 천을 꿰고, 이어 제작된 가로 6m, 세로 3m 이상의 대형 설치 작업이다. 재료의 물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크기의 한계를 무한히 이룰 수 있는 천 소재를 활용해 확장하였다. 간단한 재료인 면, 면사, 또는 대나무만을 사용해 접고, 매듭을 짓고 꿰매는 등 기법의 변주를 통해 복잡하게 엮어 완성하였으며 구름, 꽃, 이끼처럼 다양한 균락 속에서 발행하는 생명체를 얽히고설킨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낸다. 염색의 과정 중 묶거나 매듭을 짓는 과정을 그대로 남겨두는 행위를 통해 균집 속에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작은 생명력을 독특한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이후 같은 원남성 지역 동족의 직조 기법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동족의 직조 기법은 천연염료로 염색한 실을 베틀을 이용하여 직조한 뒤 햇볕에 말리고 달걀 흰자를 발라 망치로 두드리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제작되는데 마치 적동을 판금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림 20】 동족 전통 의상에 사용된 광택천의 모습

【그림 21】 린 팡루, Love under the hammer, 2023

【그림 21】의 작품은 이러한 소재의 특성이 잘 나타난 작품이며 일견 동판 소재의 조형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작가의 의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작가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섬유를 반복적인 시간과 단련의 과정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의도하였으며 본 기법이 가진 특이한 질감은 이러한 의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 우연에 일치와도 같이 매우 적합한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린 팡루의 작업은 하나의 기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착안하였다는 점과 중국 소수민족 전통 공예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노동 행위에 의미를 담아 새로운 표현 방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동족의 직조 기법의 활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가의 직관적인 사고에 의한 소재의 착목과 독특한 표현으로의 연계는 매우 신선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보이는 전통 기법의 역할은 매우 절대적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 작가는 섬유 생산 과정과 공예가 갖는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접목하여 전통 섬유 공예를 하나의 메시지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해야만 하며 중국 문화대혁명 이후 사라져가는 중국 소수민족 공예 전통의 재해석을 통해 전통의 유지 및 발전, 공예 영역의 확장성에 대해 제시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③ 정다혜 (Da-hye Jeong, 1989~)

정다혜 작가는 제주도 출생으로 한국 작가 최초로 2022년 제5회 로에베 공예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작가는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말총 공예로 석사 학위를 받으며 말총 공예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말총 공예란 말총을 재료로 하여 바늘 등의 도구로 엮어서 만드는 공예품 및 제작 기법으로 조선시대 전국적인 공예 사업이었으나 일제강점기 시대 단발령 시행과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며 사양길에 접어들어 현재는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입자장, 망건장, 탕건장 등의 국가 무형유산 보유 장인들에 의해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이다.¹⁰⁾ 조선시대 말총 공예의 제작 방법은 바늘 같은 도구를 사용해 엮는 방법과 직기에서 조직되는 방법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¹¹⁾ 작가는 주로 바늘을 이용한 엮기 기법을 활용해 작품을 제작한다. 유연하면서도 강한 물성으로 내구성과 미적 가치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말총은 또한 매우 가볍기 때문에 모자, 향낭, 선추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각 제작 과정에서는 세심한 손길과 고도의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22】 백말총 토시(좌), 흑말총 토시(우), 토시를 재현한 작품, 2020

【그림 23】 마미향갑선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참고 제작, 2020

【그림 24】 마미향갑선추, 경운박물관 소장 유물 참조 제작, 2020

10) 김나영, 「母-女로 이어온 말총모자 이야기...조선시대 제주 여성 보편적 부업」, 『삼다일보』, 2024.11.04. <http://www.samd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845>

11) 정다혜, 「말총공예 고리감기 기법을 활용한 작품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21, pp. 2-3.



【그림 25】 정다혜, 말총-빗살무늬, 2021

작가는 대학원 시절 말총의 여리고 반짝이는 소재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빌이나 장신구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특히 원형,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등 기하 도형을 활용한 현대적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절, 논문 작업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경운박물관 등에 소장된 유물을 재현하는 작업 과정을 거쳐 미처 전래 되지 못한 말총 공예품의 형태 및 문양 제작법에 관해 연구하기도 하였다. 말총 유물의 재현을 통해 형태 및 문양 제작 기법을 익힌 작가는 말총에 의한 입체화 과정에 매료되어 작품 크기의 한계를 벗어나 말총의 역사성에 더해 작가 본인의 삶의 태도를 녹여낸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2021년도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로에베 공예상의 초기작이기도 한 【그림 25】의 작품은 이러한 입체화 표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우연히 만난 거대한 크기의 선사시대 빗살무늬토기에서 느낀 강력한 에너지를 말총 공예를 하며 느낀 에너지와 비슷하다고 여겨 기(器)형의 작품 제작을 시작하였다.

대상 수상작인 <A Sincerity of Time>(【그림 26】)은 성실의 시간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가는 말총이 스스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까지 작가가 한 줄 한 줄 엮어내는 인내와 노력이 여실히 드러난다.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삶이 힘들었던 시절 말총을 엮듯 성실히 살다 보면 자신의 삶 또한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란 위안을 받았다고 말한다.¹²⁾



【그림 26】 정다혜, A Sincerity of Time, 2021, 대상 수상작

【그림 27】 사방관 관모 문양 적용 부분

작가는 【그림 27】에서 볼 수 있듯 말총 공예의 역사성을 보여주기 위해 조선시대 작품 중 사방관의 관모에 시문 되어있는 문양을 차용하여 작품 띠 부분에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다혜의 작업 방식은 전통 공예의 소재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표현에 있어서도 말총 공예의 표현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표현의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추구하는 입체적 표현에 적합한 형상과 조직을 탐구해 나간다는 데서 기존 말총 공예와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더욱 커다란 범주에서 작가의 작업 방식은 전통의 융합적인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말총 공예 기법과 소재, 그리고 선사시대의 토기라는 표현 소재까지 일관된 콘텐츠를 조합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전통의 냄새를 짙게 피우는 가운데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형태감은 역시 우리와 오랜 삶을 같이한 말총 공예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통 공예 소재 활용 여부와 조합에 따라서도 새로운 표현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구상의 각 지역에만 존재하는 다양한 소재는 그 자

12) 정다혜 작가 인터뷰, 말베니 메이커스 캠페인, 정다혜 말총 편, 2022, <https://youtu.be/GliO7kzanB8?si=OCuBPrDliAdWC660>

체가 갖는 조형성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말총 공예에서 보이는 형상과 패턴은 한국적 미감이 반영된 중요한 조형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2) 최종 결선 진출작 중 국내 작가 사례 분석

전향에서는 대상 수상작에서 보이는 전통의 재해석 양상을 통해 로에베 공예상이 추구하는 전통의 의미를 대략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시가 필요하며 특히 최종 결선 진출작에 선정된 작품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최종 결선 진출작의 경우 다양한 국적의 작품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출작의 최대 배출국인 한국의 공예 작가를 대상으로 전통의 재해석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현 한국공예에서 보이는 전통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로에베 공예상이 주장하는 전통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종 결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국내 공예 작가들의 작품 중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5점 선정하여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을 정리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규홍 작가

이규홍 작가는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국민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영국의 에든버러 예술대학(Edinburgh College of Art)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였다. 작가는 어릴 적 가톨릭 성당에서 사제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본 스테인드글라스의 다채로운 색채와 그 빛을 담는 유리에 깊이 매료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유리를 건축적 요소로 발전시킨 설치 작품 및 오브제를 제작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그림 28】 이규홍, 다듬잇돌 #1, 2014 (좌)

【그림 29】 이규홍, 떡동구미 #2, 2014 (우)

작가의 기억 속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그가 일곱 살 때 전남 진도의 할머니 택에서 보냈던 3년 동안의 시골 생활이다. 넓은 마당이 있는 한옥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당 한편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고, 그 시절 그는 친구들과 함께 고추를 말리던 멍석을 뛰어넘으며 공놀이를 하던 기억을 회상한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다.¹³⁾ 또한, 할머니가 사용하던 다듬잇돌과 맷돌, 떡동구미¹⁴⁾는 그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풍경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그의 예술적 작업에서 전통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데 기초가 된다.



【그림 30】 이규홍, Trace of Time, 2023

13) 최재수, 「추억 담아 만든 유리공예...이규홍 작가 '자연의 침묵'전」, 『매일신문』, 2016.11.28. <https://www.imaeil.com/page/view/2016112804161827950>

14) 짚으로 둥글고 울이 깊게 결어 만든 그릇. 주로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담는 데에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

작품 <Trace of Time>(【그림 30】)은 2023년 로에베 공예상에서 최종 결선에 진출한 작품으로, 한국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이 작품은 작가의 개인적인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맷돌을 형상화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규홍의 작업 과정은 자연에서 채취한 돌을 흙 표면에 찍어내어 전체적인 형태와 질감을 살리며 원형을 제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석고와 실리콘 혼합물로 질감을 입힌 흙에 부어 가마 소성이 가능한 몰드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최종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 광학유리를 몰드에 넣어 소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Trace of Time>은 화려한 금박과 유리의 반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갈색 유리 대신 투명한 유리에 전통 옷칠과 금박을 입혀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창출한다. 이 작품에서 이규홍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담아내고 있으며, 유리는 빛을 머금고, 투과하며, 반사하는 물성을 통해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형성한다. 유리 주조 작업에서 나타나는 매끈한 표면과 거친 단면의 질감 대비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배가시킨다.

결론적으로, 이규홍 작가는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복합적인 시각에서 작품에 접근하고 있다. 그는 개인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적 요소를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대적 미디어와 기술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시대적 맥락에 맞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의 작업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며, 과거의 문화적 유산이 현재의 예술적 표현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특히, 맷돌이나 둥구미, 다듬잇돌 등 과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민예품을 현대적 재료와 기법을 통해 재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서 전통을 바라보게 하며,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작가는 유리라는 매체의 물성을 활용하여 빛과 색채, 질감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통의 미적 가치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시각적 경험을 넘어서 관객이 개인의 기억과 문화적 정체성

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의 작품은 전통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변모하고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예술이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더욱 풍부한 의미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1】 이규홍 작가의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1)

사진		→	
설명	멧돌,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Trace of Time, 이규홍, 2022

【표 6-2】 이규홍 작가의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2)

사진			→	
설명	요지연도 10폭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스테인드글라스, 성 바투스 성당		240201, 이규홍,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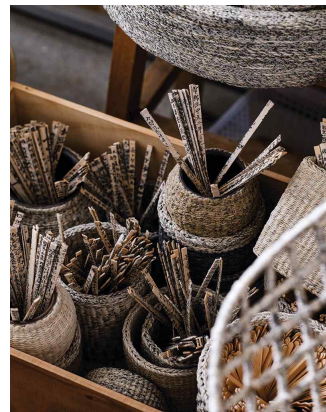
② 이영순 작가

이영순 작가는 한국의 전통 공예인 지승¹⁵⁾ 공예 장인으로, 종이를 꼬아 엮어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공예 기법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작가이다. 한지를 꼬아 만든 끈을 엮어 주로 생활용품이나 장식품을 제작하는데, 종이의 질기고 유연한 특성을 살려 다양한 형태와 질감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영순 작가는 이 전통 기법을 현대적인 조형미와 결합하여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승 공예를 국제무대에 소개하며 널리 알리고 있다.

지승 공예는 한지 끈을 엮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손작업을 통해 형태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섬세한 기술이 요구된다. 작가는 전통적인 지승 공예의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와 색감을 시도하여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 작가의 작품은 전통적인 바구니나 생활용품에서부터 현대적 조형물이자 예술 작품으로 확장되어, 다양한 색채와 형태를 통해 사라져가는 지승 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그림 31】 이영순, Cocoon Top series, 2019



【그림 32】 지승 작품 제작을 위한 준비 작업물

15) 지승(紙繩), 종이 노끈을 의미한다. 한지를 비비고 꼬아 끈을 제작한 뒤 짜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종이 공예의 한 갈래.

2019년 로에베 공예상 최종 결선 진출작에 선정된 <Cocoon Top>은 그 형태와 색감이 매우 다채롭고 유기적이다. 전통적인 지승 기법을 기반으로 기하학적인 패턴이나 곡선을 만들어 작품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단순한 바구니나 생활용품을 넘어 조형물로서의 미적 가치를 지닌다. 이 작품에서는 반복되는 패턴과 유기적으로 꼬아진 한지의 형태가 특징적인데 이는 고서(古書)에 쓰인 글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형태는 고서의 문자적 아름다움과 전통적인 수공예의 정수를 결합하여 시각적 및 촉각적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작가는 한국의 우수한 한지의 품질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승 공예에서는 볼 수 없는 참신한 조형적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한지라는 소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오래된 한옥에서 폐기되는 창호지나 폐기되는 고서의 한지에 주목하여 오랜 숙성 끝에 완숙된 재료를 다루듯 오랜 한지가 갖는 천연의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형과 색상을 활용하여 작품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오랜 세월에 바랜 한지의 색상은 인위적인 염색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색상과는 달리 세월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그 속에 쓰인 한자 또한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이야기 외에 작가의 손에 의해 꼬여져 단순한 검정색상으로의 전환과 동시에 흑과 백의 병치혼합에 의한 새로운 색상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형태에 있어서는 전통 용기인 바구니나 향아리 형태를 주로 제작하는데 형(形) 자체에는 큰 특징이 보이지 않으나 앞서 기술한 한지의 꼬임 패턴과 흑백이 강조된 색상이 더해 새로운 질감과 양감의 오브제 느낌을 준다. 또한, 여러 바구니가 겹쳐 쌓아지는 과정에서 보이는 조형적 형상의 발견은 작가의 의도를 포함한 필연적인 조형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가의 제작 의도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깊은 관찰과 경험 속에 얻은 전통의 잠재력이라 할 수 있으며 작가는 오래된 한지라는 전통 소재에 대한 착목과 인위적이 아닌 천연의 필연적인 색상에 의한 패턴 도출을

통해 기존 실용 중시의 지승 공예에서 벗어나 특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작품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7】 이영순 작가의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

사진		→	
설명	지승둥구미, 일제강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Cocoon Top 시리즈

③ 이재익 작가

이재익 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에서 금속 전공으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로체스터 공과대학교 대학원에서 두 번째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작가는 어릴 적 잠깐 거주했던 포항이라는 항구도시에서 만난 다양한 해양 생명체가 그의 조형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도시에서 접하기 어려운 생물 군상들을 그리며 느꼈던 생명체의 역동성을 금속 작업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그림 33】 이재익 작가의 'Lifeform'_작업 시리즈



【그림 34】 이재익, Transition VII, 2023

2023년 로에베 공예상 최종 결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Transition VII>은 레이저 커팅, 용접 등 금속 공예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물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소재를 유추하기 어렵게 표면 처리를 한다. 그는 용접과 망치질을 통해 표면에 다양한 질감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작품에 깊이와 입체감을 더하고 관객에게 시각적 흥미를 유도한다. 또한 재단한 동판 조각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용접 기법을 사용하여 일체형 구조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며, 이는 작품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복잡한 형태를 형성한다. 이재익 작가가 달항아리를 형태적 모티브로 삼은 이유는 극복과 생존에 대한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¹⁶⁾ 그는 조선 도공들이 보름달과 같은 백자대호(大壺)를 만들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 흙이 무너지는 과정을 거쳐 반구 형태의 그릇 두 점을 합치는 방법으로 발전한 것 또한 생명력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소성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쏠려 찌그러지는 형태는 비대칭적인 조형미를 통해 표현되며, 이는 항상 완벽할 수 없는 생명체에 대한 위안으로 작용한다.

16) 장남미, 「금속으로 표현한 삶, 그리고 예술적 탐구」, 『공예+디자인』, Vol. 6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4, p. 61-62.



【그림 35】 작품 제작 과정

작가의 작업 방식은 3D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상한 작품의 형태를 수정한 뒤, 2D 프로그램을 통해 작동 판을 레이저 커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작은 작동 판은 열 풀림 과정을 거쳐 용접할 부분을 표시한 후, TIG 용접¹⁷⁾ 방식을 사용해 점(点)용접한다. 이 과정에서 남겨지는 용접의 흔적은 작가가 매끈하게 다듬지 않고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용접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요소를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생명체가 성장하며 남기는 생명력의 흔적으로 해석한 연유이기도 하다. 최종적으로 하나의 형태로 결합된 작품은 산화피막을 제거한 뒤 연마 과정을 거쳐 붉은빛의 금속 향아리로 탄생한다. 작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을 바라볼 때 직관적으로 재료를 인식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자 장식 기법 중 하나인 포슬린 페인팅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금속 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펀지에 안료를 묻혀 찍어내듯 마감하여 금속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색상과 질감을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축각적으로도 금속성과의 대비를 표현하며, 작품의 독창성을 더욱 강조한다.



작가가 로예베 공예상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한국 전통의 달항아리 형태와 도자기라는 물성을 금속으로 표현함으로써 어찌면 ‘소재의 치환’이라는 방식으로 달항아리를 재해석했다는 점이다.

17) 텅스텐 불활성 가스 용접법(tungsten inert-gas arc welding). 전극으로 텅스텐을 사용하여 알곤, 헬륨 등의 불활성 가스를 분사하면서 용접하는 방법으로 금속 산화물의 발생이나 불순물의 혼입이 적다.

그는 금속을 통해 전통 도자기의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면서도 포슬린 페인팅 도자 장식 기법을 금속 공예에 접목하는 다층적인 소재의 치환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금속 공예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결과적으로는 도자기에서 나타나는 생명력과 상징성을 금속의 특성과 결합하여 전통 소재의 경계를 허물고 금속과 도자가 갖는 물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8】 이재익 작가의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

사진		→	
설명	백자 달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Transition 시리즈 작업 과정

④ 정명택 작가

정명택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한국의 고건축이 자연 친화적 구성을 추구하며, 인위적인 조형 구성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자연미(自然美)’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고건축에 내재한 이러한 자연미를 ‘무위(無爲)의 순수미’, ‘무심(無心)의 담백미’, ‘무형(無形)의 공간미’라

는 세 가지 특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三無정신’이라 규정하였다.¹⁸⁾ 이러한 관점은 한국 전통 건축이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36】 정명택, Dumbung-Jucho, 덩빙 주초, 2022

2022년 로에베 공예상에 출품된 <Dumbung-Jucho, 덩빙 주초> 작품은 정명택 작가의 이러한 철학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덩빙 주초는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무작위로 놓은 초석으로, 이는 서양에서 자연을 통제와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자연의 요소를 원래 있던 그곳에 두고 바라보는 자연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은 건축의 요소를 실내 공간으로 들여와 물질과 비물질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다.

작품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황동으로 제작된 덩빙 주초의 형상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석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 두 요소는 서로 대비되는 질감과 소재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드러낸다. 황동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질감을

18) 정명택. 「한국 고건축의 三無정신이 발현된 아트퍼니처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2015, pp. 8-9.

최대한 배제하여 굳더더기를 제거한 무심의 담백미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적 미감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자연석은 그 자체의 고유한 물성을 통해 무위의 순수미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조는 전통적인 자연관이 현대적 요소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명택 작가의 작품은 동양 사상에서 강조하는 음양의 조화를 무형의 공간미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 미감을 결합함으로써, 관객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사유를 유도한다. 또한, 그의 작업은 단순히 전통적 소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시각에서 전통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 9】의 작품은 전통 소재의 모티브 활용에 더해 기능성까지 고려한 작가의 의도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작가의 작업은 한국 전통의 고건축을 모티브로 끌어와 공예적인 가공과 새로운 용도로의 전환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예술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9】 정명택 작가의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

<p>사진</p>		<p>→</p> 
<p>설명</p>	<p>황룡사 금당지 초석, 신라시대, 경상북도 경주</p>	<p>덤, 정명택, 2023</p>

⑤ 허상욱 작가

허상욱 작가는 한국 전통 도자기의 대표적인 양식인 ‘분청사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도예가이다. 그는 국민대학교에서 도자기를 전공하고, 이후 다양한 전시와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도자기의 미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데 힘쓰고 있다.

분청사기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제작된 도자기로, 소박하면서도 독창적인 무늬와 색감이 특징이다. 백토를 덧칠한 후, 그 위에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이 더해지는 이 도자기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형태와 색채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미감을 잘 보여준다. 분청사기의 매력은 단순함과 우아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편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전통 도자기는 단순히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어 현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림 37】 허상욱, 분청 청, 철화 은채 파초문 호, 2022

작가는 이러한 분청사기의 전통적인 미감을 현대인의 감각에 맞춰 변형하여 작품 속에 자연과 삶의 단순함을 담아내고자 한다. 그는 자연스러운 멋과 손맛을 살리면서도 보다 간결한 형태와 색감을 도입하여 현대적인 감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도자기가 가지는 전통적인 기능성을 넘어 간결하고

세련된 조형미를 드러내며 일상 공간에 두었을 때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도자기가 생활 속에서 가지는 예술적 가치를 여실히 보여준다.

작가는 분청사기의 전통 기법인 박지기법을 주로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데 박지 기법은 흙 표면에 백토를 바르고 배경을 긁어내는 기법으로 분청사기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색감을 만들어낸다. 특히 그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무늬와 해학적인 동물 등을 작품에 삽입하여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로운 붓 터치를 가미하거나 은채(銀彩), 청화 등의 전통 기법을 활용해 작품을 회화적으로 변형하는 과정은 기존 분청사기에서는 볼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8】 허상욱, 분청 청, 철화 은채 파초문 호, 2019

【그림 39】 청, 철화 은채의 확대 모습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분청사기가 갖는 전통 기법의 한계를 타 분야의 도자 기법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분청사기의 장식은 철화(鐵畵)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는 청화사기의 채색 기법을 응용하고 거기에 더해 은채라는 상회 기법까지 끌어와 분청사기 장식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

은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은채는 재벌 소성 후 저화도로 삼벌 소성이 필수이기에 어쩌면 분청사기의 기술적 본질과는 매우 상이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은채와 같은 상회 장식은 주로 고급 도자기의 화려한 장식 기술로 사용됐기에 서민적이고 일상용품에 지나지 않은 분청사기와 같은 질그릇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작가의 표현 의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은채의 특징 중 하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화 현상에 의한 변색이 이루어지는데 작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뾰얀 은이 점차 진한 색깔로 변화된 결과에서 보이는 오래된 느낌에 의미를 담아 관객에게 깊은 감동과 사유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작가는 분청사기가 갖는 특유의 조형적 미감을 타 분야의 전통 기법과의 접목을 통해 특정한 의미와 미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0】 허상욱 작가의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과정

사진		→	
설명	분청사기 박지 철화 모란무늬 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분청 은채 파초문 편병, 허상욱, 2023

Ⅲ. 결 론

로에베 공예상은 세계 각지의 공예가들에게 공예의 비전과 혁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예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 그 시작을 전통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전통이라는 개념하에 존재하는 많은 이야기와 아카이브 그리고 기술과 소재는 재구성 또는 재조합 정도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새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에서는 로에베 공예상의 수상작을 대상으로 전통의 재해석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로에베 공예상의 설립 배경 및 운영 방식을 살펴본 결과 현 공예의 역할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가 발굴,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수상작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분석해 보면 공예 분야 중 도자, 섬유 등의 전통공예산업을 배경으로 하는 장르에 집중되어있다는 점과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권의 수상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시아권의 강세는 긴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아시아의 공예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실제 많은 아시아권 작가의 작품에서는 다양한 전통적 소재와 기법의 활용을 볼 수 있었다.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로에베 공예상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공예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수상작을 중심으로 작품에 담겨있는 전통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공예에서 보이는 기법, 소재, 형태를 3대 주요 요소로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3대 요소는 작가의 사고와 표현 의지에 따라 핵심적인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법의 응용’, ‘소재의 치환’, ‘형태의 인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의 적절한 조합과 접목을 통해 예술표현으로의 영역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전통의 재해석에 있어 국내 작가를 대상으로 판단되는 특징 중 하나는 3대 주요 요소 중 ‘형태의 인용’을 활용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재의 치환’에 있어서도 주제의 치환 또는 소재의 재질에서 표면 장식의 영역까지 ‘다층적인 기법의 치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복합적인 조합 또는 재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로에베 공예상에서 보이는 전통의 가치는 공예가 갖는 지역적, 문화적 풍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여기에 담긴 무한한 이야기와 기술적 잠재력에 대한 재인식은 공예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공예 범주의 확대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로에베 공예상이 지향하는 공예 발전에 있어 주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전통의 가치와 활용 양상에 대해 자료를 근거로 정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작가의 작품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후 연구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토대로 공예에 있어 전통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해 나아가자 한다.

참 고 문 헌

<학위 논문>

- 정명택, 「한국 고건축의 三無정신이 발현된 아트퍼니처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5.
- 이열, 「중국 전통 천연염색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국 윈남(云南)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6.
- 정다혜, 「말총공예 고리감기 기법을 활용한 작품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21.

<전시 도록>

- 로에베 재단, 『Loewe Foundation Craft Prize 2022』, 서울공예박물관, 2022.

<정기 간행물>

- 장남미, 「금속으로 표현한 삶, 그리고 예술적 탐구」, 『공예+디자인』, Vol. 6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4.

<신문 자료>

- 최재수, 「추억 담아 만든 유리공예...이규홍 작가 '자연의 침묵'전」, 『매일신문』, 2016.11.28.
- 김나영, 「母-女로 이어온 말총모자 이야기...조선시대 제주 여성 보편적 부업」, 『삼다일보』, 2024.11.04.
- 손기호, 「북촌에서 조나단 앤더슨과 나눈 애정과 영감에 관한 대화」,

『보그 매거진』, 2023.03.08.

<웹사이트>

- 로에베 재단 (<https://craftprize.loewe.com/en/craftprize2025/>)
- 로에베 공예상 The Room (<https://theroom.loewe.com/en/>)
-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
- 국립민속박물관 (<https://www.nfm.go.kr/home/index.do>)
- 에른스트 갬펠 작가 홈페이지 (<https://www.ernst-gamperl.de/work/>)
- 이시즈카 겐타 작가 홈페이지 (<https://gentaishizuka.com/>)
- Erskine, Hall & Coe 갤러리 (<https://ehc.art/exhibitions/genta-ishizuka-2018>)
- Ala CHAMP (<https://champ-magazine.com/art/genta-ishizuka/>)
- 린 광루 작가 홈페이지 (<https://www.linfanglu.com>)
- 보그 매거진 (<https://www.vogue.co.kr/?p=285308>)

<인용 이미지 출처>

【표 4】 <https://theroom.loewe.com/en>

【표 5】 <https://theroom.loewe.com/en>

【표 6-1】 좌: https://www.nfm.go.kr/user/data/home/101/DataRelicView.do?s_eq=PS0100200100100858800000

우: https://craftprize.loewe.com/on/demandware.static/-/Sites-LOE_CP-Library/default/dwddb279f/CRAFT%20PRIZE%202023/FINALISTS%202023/4th%200BATCH/LOEWE_2023_CRAFT_PRIZE_CAMPAING_Kyouthong%20Lee_SINGLE_RGB_CROPPED_1000x780.jpg

【표 6-2】 좌: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2281>

중: <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D%85%8C%EC%9D%B8%EB%93%9C%EA%B8%80%EB%9D%BC%EC%8A%A4>

우: <http://mcraft.kookmin.ac.kr/?p=4341>

【표 7】 좌: <https://www.nfm.go.kr/user/data/home/101/DataRelicView.do?seq=PS0100200100103850800000>

우: https://craftprize.loewe.com/on/demandware.static/-/Sites-LOE_CP-Library/default/dwe4e072ab/FINALIST%202019/3%20VIEWS/CP_ARTWORKS_WEB_86.jpg

【표 8】 좌: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941>

우: <https://www.instagram.com/p/CyuTmWyJnFa/>

【표 9】 좌: 정명택. "한국 고건축의 三無정신이 발현된 아트퍼니처 연구." 국내박사 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5.

우: <https://www.instagram.com/p/C4K7P6CykqE/>

【표 10】 좌: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5906>

우: <https://www.instagram.com/p/CvY3s7tpJdP/>

【그림 1】 <https://www.instagram.com/p/BIS8Yd9lakC/>

【그림 2】 <https://craftprize.loewe.com/en/craftprize2022>

【그림 3】 <https://theroom.loewe.com/en/artwork/yeonsoon-chang/matrix-iii-time-space-human-123>

【그림 4】 <https://theroom.loewe.com/en/artwork/yeonsoon-chang/matrix-i-080405>

【그림 5】 <https://solunacraft.com/38>

- 【그림 6】 <https://solunacraft.com/64>
- 【그림 7】 <https://www.ernst-gamperl.de/3320/>
- 【그림 8】 <https://theroom.loewe.com/en/artwork/ernst-gamperl/tree-of-life-2>
- 【그림 9】 https://www.kurodatoen.co.jp/cp_lineupcat/tatsuaki-kuroda/
- 【그림 10】 <https://theroom.loewe.com/en/artwork/genta-ishizuka/surface-tactility-11>
- 【그림 11】 https://emuseum.nich.go.jp/detail?langId=ko&webView=&content_base_id=100799&content_part_id=0&content_pict_id=0
- 【그림 12】 https://emuseum.nich.go.jp/detail?langId=ko&webView=&content_base_id=100421&content_part_id=0&content_pict_id=0
- 【그림 13】 https://www.instagram.com/p/C-uEBuizu9c/?img_index=7
- 【그림 14】 연구자 직접 촬영
- 【그림 15】 <https://ehc.art/artists/genta-ishizuka/works/GI-0019>
- 【그림 16】 https://youtu.be/iOgN_ENVS6M?si=iNhwaR50KcMBJL_G
- 【그림 17】 https://youtu.be/iOgN_ENVS6M?si=iNhwaR50KcMBJL_G
- 【그림 18】 <https://www.instagram.com/p/BIuyv6ihPGa/>
- 【그림 19】 좌: https://craftprize.loewe.com/on/demandware.static/-/Sites-LOE_CP-Library/default/dw32fd8301/FINALISTS2021/FangLuLin_Winner1.jpg
우: <https://www.linfanglu.com/she-s>
- 【그림 20】 https://www.instagram.com/p/CQ86cuWF2F2/?img_index=1
- 【그림 21】 <https://www.linfanglu.com/she-s>
- 【그림 22】 정다혜. "말총공예 고리감기 기법을 활용한 작품 연구." 국내석사 학위논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 【그림 23】 정다혜. "말총공예 고리감기 기법을 활용한 작품 연구." 국내석사 학위논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그림 24】 정다혜. "말춤공예 고리감기 기법을 활용한 작품 연구." 국내석사 학위논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그림 25】 https://www.instagram.com/p/CSOfG51jEOi/?img_index=1

【그림 26】 https://craftprize.loewe.com/on/demandware.static/-/Sites-LOE_CP-Library/default/dw4dde09b5/CRAFT%20PRIZE%202022/new%20grid%202/Dahye_Jeong_2_1000x780.jpg

【그림 27】 https://craftprize.loewe.com/on/demandware.static/-/Sites-LOE_CP-Library/default/dwf43c41ed/CRAFT%20PRIZE%202022/new%20grid%202/Dahye_Jeong_3_1000x780.jpg

【그림 28】 http://gallerysklo.co.kr/sklo_artist/lee-kyou-hong/

【그림 29】 http://gallerysklo.co.kr/sklo_artist/lee-kyou-hong/

【그림 30】 https://craftprize.loewe.com/on/demandware.static/-/Sites-LOE_CP-Library/default/dwddb279f/CRAFT%20PRIZE%202023/FINALISTS%2023/4th%20BATCH/LOEWE_2023_CRAFT_PRIZE_CAMPAING_Kyouthong%20Lee_SINGLE_RGB_CROPPED_1000x780.jpg

【그림 31】 https://craftprize.loewe.com/on/demandware.static/-/Sites-LOE_CP-Library/default/dwd0dc4558/FINALIST%202019/3%20VIEWS/CP_ARTWORKS_WEB_85.jpg

【그림 32】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574033&memberNo=24082060&vType=VERTICAL>

【그림 33】 좌: <https://www.instagram.com/p/DBIL3CHz7Qq/>

중: <https://www.instagram.com/p/B7r8hNDnSDP/>

우: <https://www.instagram.com/p/B8Tw9ODAEBw/>

【그림 34】 https://craftprize.loewe.com/on/demandware.static/-/Sites-LOE_CP-Library/default/dw73549317/CRAFT%20PRIZE%202023/FINALISTS%202023

3/2nd%20BATCH/LOEWE_2023_CRAFT_PRIZE_CAMPAING_Jalik%20Lee_S
INGLE_RGB_CROPPED_1000x780.jpg

【그림 35】 <https://www.instagram.com/jaiiklee/>

【그림 36】 [https://craftprize.loewe.com/on/demandware.static/-/Sites-LOE_C
P-Library/default/dwfaf54e58/CRAFT%20PRIZE%202022/new%20grid%206/
Myungtaek_Jung_1_1000x780.jpg](https://craftprize.loewe.com/on/demandware.static/-/Sites-LOE_C
P-Library/default/dwfaf54e58/CRAFT%20PRIZE%202022/new%20grid%206/
Myungtaek_Jung_1_1000x780.jpg)

【그림 37】 [https://craftprize.loewe.com/on/demandware.static/-/Sites-LOE_C
P-Library/default/dw562e6d91/CRAFT%20PRIZE%202022/new%20grid%207/
Sangwook_Huh_1_1000x780.jpg](https://craftprize.loewe.com/on/demandware.static/-/Sites-LOE_C
P-Library/default/dw562e6d91/CRAFT%20PRIZE%202022/new%20grid%207/
Sangwook_Huh_1_1000x780.jpg)

【그림 38】 https://www.instagram.com/p/Bzh_IPjgWuh/?img_index=1

【그림 39】 https://www.instagram.com/p/Bzh_IPjgWuh/?img_index=1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 in the Loewe Craft Prize

Park Su mi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LOEWE FOUNDATION Craft Prize was established in 2016 by Jonathan Anderson, the creative director of LOEWE, aims to recognize and promote excellence in modern craftsmanship and artistic innovation. This prize serves as a global platform for craftspeople from over 100 countries to demonstrate their aesthetic creativity and skills. A key aspect of the judging criteria is the focus on “innovation of tradition,” which promotes the pursuit of new avenues in craft through the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practices.

The LOEWE Craft Prize consistently highlights new perspectives on tradition, offering insights into how craft extends beyond mere functionality to address broader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craft as reflected in the works of the final candidates selected for the LOEWE Craft Prize, with the aim of identifying and presenting new possibilities within the field of contemporary craft.

The analysis focuses on the winning entries and shortlisted works from 2017 to 2024, exploring the connections to tradition evident in materials, techniques, and forms. These connections are presented visually through charts and illustrations to provide a structured analysis.

In particular, this study conceptualizes the strategies and patterns observed in the use of three core elements—traditional materials, techniques, and forms—in the process of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Based on this conceptual framework, the study evaluates the role of tradition in the creative processes of individual artists. By assessing the current state of craft through the lens of tradition, this report aims to propose potential pathway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craft, aligned with the vision and values championed by the LOEWE Craft Prize.